재한 미얀마유학생들, 쿠데타 여파에 이중고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마얀마 외화송금 제한 조치에
학비 · 생계비 지원 중단 상황
장학생외에는 학업 지속 난항
"유학생 위한 긴급 지원 필요"

미얀마 쿠데타 여파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통신 차단으로 가족이나 친지와의 연락이 두절돼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 받는 상황에서, 본국의 금융 마비 및 은행의 외화 송금 제한 조치로 학비 · 생활비 지원까지 끊기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쿠데타 상황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유학생들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얀마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공부 중인 미얀마 유학생은 4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올해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렀던 유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쿠데타 발생 후 군부가 현지 은행 등 금융권의 해외 외화송금을 제한하면서, 한국에 있는 미얀마유학생들의 학비 · 생활비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유학생들과 폭넓은 교류를 이어온 최재희 양곤대 박사과정 학생은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상황은 조금 낫지만,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사실상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친구들은 학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 금융은 쿠데타 이후 은행들의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마비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시민불복종운동' 등 군부에 반대하는 파업이 은행권에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현금 인출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던 일부 은행들도 군부의 인터넷 사용금지 조치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매주 토요일 하남 상불사에서 진행되는 미얀마 평화 발원 기도회에 참석한 미얀마 양곤외대 에에띤 교수와 유학생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얀마유학생 중에서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통 · 번역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생계비를 마련해 온 경우가 적지 않은데, 쿠데타 이후 통번역 업무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군부가 인터넷 등 통신을 끊으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이 두절돼 마음을 졸이고, 동시에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계명대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6개월간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체 유학생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에에띤 양곤외대 한국어과 교수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은 약 200여명. 상당수가 에에띤 교수의 제자들이다. 현재 서울대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중인 그는 "쿠데타 이후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불안감과 슬픔, 무력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에 미얀마 상황을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학생들도 많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데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고 더 이상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이 불가능해 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에띤 교수는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찾으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 상황 역시 코로나로 인해 좋지 않아 쉽지 않다"며 "쿠데타가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신교계 단체나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유학생들에게 개종을 전제로 장학금 지원을 제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위치한 미얀마전법선원의 한 신도는 "쿠데타 이후 유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교회가 장학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미얀마가 불교국가인만큼 유학생들 또한 독실한 불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계 때문에 개종하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얀마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불교계는 잇따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연에도 나서 주목된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대표적이다. 아름다운동행은 6월 30일까지 '미얀마에 자비와 평화가 오기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모금을 진행한다. 모연된 기금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군부 쿠데타의 대량학살로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 한 미얀마민주화 관련 단체가 태국을 통해 본국으로 지원금을 송금하려다 군부측의 감시망에 포착돼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미얀마 본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국내 미얀마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정적 운영기반 · 체계적 관리에 만전"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
초대 운영위원장에 덕문 스님


초대 운영위원장 덕문 스님

아프리카 최초의 불교종립학교인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체계적운영으로 발전을 이끌 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후원과 운영시스템 발전을 일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덕문 스님은 3월 24일 아름다운동행이 화엄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새로운 운영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특히 덕문 스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공업중생인만큼, 자비심을 같이 일으켜 더불어 다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지구촌 반대편 나라에 전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운영위원회가 단순 후원을 넘어, 후원과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를 꾀하고 꾸준한 관리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운영위원회는 덕문 스님을 위원장으로, 고문과 부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운영위원 1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스님, 재가 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덕문 스님은 "운영위원회는 향후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운영과 예결산 검토, 발전기금 조성, CMS 정기후원자 모집 등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현재까지 배출한 120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한국 견학과 유학 등을 주선하는 등 사회적 농업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탄자니아 국민들이 좋은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매년 후원자의 밤, 현장순례, 유학 · 장학생 후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선진 농업기술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전수하고 그들의 가난 극복을 돕기 위해 설립한 농업전문대학으로, 지난 2016년 개교해 2019년 1회, 2020년 2회 졸업생 등 120여 명을 배출했다. 특히 학비와 기숙사비를 무료로 운영하는 3년제 대학으로, 대학 진학률이 낮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면 지역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불교 총본산 홍제사 불사 본격화

공사업체 선정…4월 중순 시작

군불교 총본산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가 본격화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혜자)는 3월 24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군종특별교구 회의실에서 건축시공사 지오건설과 감리사 어스 건축사사무소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식에는 선묵혜자 스님, 부교구장 성진 스님, 종책실장 보운 법사, 지오건설 김준형 상무, 어스 건축사사무소 신정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오건설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건설을, 어스 건축사사무소는 불사의 감리를 총괄하게 된다.

홍제사 불사는 착공 준비 과정을 거친 뒤 4월 중순 경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혜자 스님은 "군불교 총본산을 세우는 부처님 불사인 만큼 종단의 지원과 교구차원의 모연을 통해 원만하게 불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사진 왼쪽서 세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홍제사 조감도를 들고 있다.

(02)797-7266 노덕현 기자

민추본, '평화통일발원문' 공모전 개최

4월 18일까지 출품 접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평화통일발원문'을 공모한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의 평화와 통일, 민족화해의 서원을 모아낸다는 취지다.

공모전은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기도문 또는 발원문은 자유형식이며, 남북 간 평화와 통일, 화합과 협력을 서원하고 공존 · 상생의 메시지, 혹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남북불교도의 노력과 실천의지를 담은 내용이면 된다. 출품작은 이메일(민추본 홈페이지 참조)로 접수 가능하다.

내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하며,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하루 앞 둔 4월 26일 민추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총무원장상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패,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상 1명 상금 50만원 및 상장, 가작은 총 3명이며 상금 각 20만원 및 상장이 수여된다.

민추본은 이번 공모에서 평화통일발원문이 선정될 경우 이를 인쇄물이나 스마트폰용 모바일 페이지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